



교회출판문화 이대로 좋은가?

'신자들도 책 안 읽는다, 해법은 없나?'
세미나 '한국교회 출판문화의 어제와 오늘'
'전문화·대중화·시장과의 피드백' 등 대안 모색

가톨릭 신자 40.5퍼센트 '어쩌다 한번 신앙서적 접한다'

오랜 출판계 불황 속에 한정된 독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출판계 역시 위기라고 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종교출판이 이같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출판사의 전문화·대중화를 추구하고, 업계의 상호 연대, 종교출판 콘텐츠의 보편화 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톨릭신문사 취재부장 박영호 씨는 최근 열린 종교출판 관련 세미나 '한국교회출판문화의 어제와 오늘'에서 "특히 가톨릭 신자들의 독서율이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출판계 역시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이날 박씨의 주장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서적 독서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가톨릭신문사가 창간 70주년을 맞아 2000년에 실시한 보고서와 1990년에 실시한 조사를 비교하면 가톨릭 신자들의 독서 빈도는 10년간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따르면 교회 일반서적의 열독률을 물었을 때 '많이 읽는다'는 답변이 6.2퍼센트, '어느 정도 읽는다'는 34.3퍼센트, '별로 읽지 않는다'가 30.9퍼센트, '거의 읽지 않는다'가 28.6퍼센트로, 응답자의 40.5퍼센트가 간헐적으로 교회 서적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같은 제목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읽는다'는 답변이 67.1퍼센트로 나타난 데 비해 10년간 독서 빈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책 안 읽는 신자들? 협소한 시장·영세한 출판업계 등 '삼중고三重苦'

주제 발표에서 박씨는 "'출판계 전반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다수의 교회출판 관계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이 더 이상 신심을 위해 교회출판물을 마땅히 읽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출판계 위기'와는 별도로 '교회출판계 위기'를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가톨릭신문사 취재부장 박영호 씨는 교회 출판물 시장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회출판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한된 신자 수에 제한된 주제와 내용으로 출판되는 서적들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교회출판물이 소위 기획출판까지 나아가는 데는 근본적으로 열악한 재정난을 해결해야만 한다. 기획출판을 위해선 적지 않은 재정 및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교회출판사들은 현실적으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수의 출판사들이 기획출판은 꿈도 못 꾸는 채 번역물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물 시장 역시 근래 들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일반출판사측에서 교황과 교황칭, 마더 테레사 등 유명 가톨릭 콘텐츠를 갖고 소재 발굴을 하면서 그나마 있던 독자들까지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광고 및 문화 이벤트, 독자 서비스는 꿈도 못 꾸다. 그나마 광고 대안으로 미사 때 본당에서 관촉활동을 하곤 했지만, 출판사 직원들로선 관촉활동 횟수가 잦아지면서 근로 조건을 문제시하거나, 본당 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교회와 신자들의 불평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과 문제점이 속출했다.

교회서적의 유통 문제도 피할 수 없는 난제다. 교회출판물이 일반서점에 유통되는 일은 사실상 힘든 현실에서 대안으로서 인터넷서점이 등장하긴 했지만 출판물의 주 독자인 중년층이 이를 얼마나 활용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문성, 대중성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다수의 출판 관계자들은 교회출판계의 위기 해법을 기본적으로 '상호 연대와 협력'에서 찾고 있다. 지나친 경쟁과 제살까기를 하기보단 이를 지양하고 공생의 해법을 찾자는 의견이다. 일례로 홍보주일을 맞아 명동성당 인근에서 펼쳐진 공동축제 같은 행사들을 자주 기획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다. 또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독서운동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가톨릭신문사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가톨릭독서운동, 신심 서적 33권 읽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문화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수녀들의 독서일기(바오로딸 수도회)처럼 종교적인 콘텐츠를 보편적으로 알리는 창구를 찾자는 의견들도 있다. 기독교출판계 자체의 전문화, 대중화 시도에 대한 논의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수태 교수는 "출판사 자체의 특성화, 전문화"를 제안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특정 주제를 의미 있게 파고드는 출판사의 특색 있는 행보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실제로 스위스 파르비스 출판사는 한 길을 택해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대표적인 경우. 40년 동안 성모 마리아 중심의 정기간행물과 책을 간행한 이 출판사는 시장을 스위스에 한정짓지 않고 프랑스, 독일어판 도서까지 출간하면서 자사 출판물을 국제적인 영역으로 알리며 발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 교수는 "여성, 환경 등 여러 부문에서 교회가 현실과 괴리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천주교회 출판이 한국사회 현실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질 것"도 제안했다.

교회 '공간' 활용? 출판계와 독자의 피드백도 중요

교회라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회 자체에서 사목활동의 유용한 도구로 출판물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영호 씨는 "교회출판물의 유통망이 전국 30여 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본당 성물방을 서점화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또한 교회출판계의 전문화, 대중화 바람을 시작으로 차후 교회출판계는 출판계 자체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이종범 씨는 "교회출판계도 이른바 '환류(Feedback)'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독자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면서 출판지향점을 찾기보단, 독자들을 출판활동에 적극 참여시킬 통로를 마련하는 의미에서의 대중화 작업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

세미나 '한국교회 출판문화의 어제와 오늘' 세미나

출판계, 독자, 교회 당국 모두 힘써야

● 지난 5월 10일 명동성당 게스트홀에서 '한국 교회출판문화의 어제와 오늘'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가톨릭신문사,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번역서 위주나, 지나치게 가벼운 에세이 등 안이한 출판경향을 보여온 교회출판계 자체의 한계와, 출판분야에 대한 평신도들의 참여 부족 등이 지적됐다. 이날 발제자 가운데 박영호 가톨릭신문사 취재부장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독서운동의 필요성을 실감하면서 출판계와 독자 그리고 교회 당국의 관심, 열정, 지원이라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공감을 샀다.

● 교회출판 위기를 타개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선 충남대 사학과 김수태 교수의 기조강연('한국교회 출판의 역사')에 이어 △이종범 씨(주교회의·언론학박사)의 '한국 교회 출판의 신학적 조명'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우리나라 독서문화의 현황과 과제' △이기양 신부(잠실7동 본당주임)의 '독서운동, 서울 잠실7본당사례' 등 다양한 주제발표가 이어져 교회출판업계와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